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모의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1~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문학, 사회문화, 한국 지리, 세계사, 국어,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자원(에너지)의 고갈, 국가의 역할, 공동체와 협력, 개혁과 착취, 지속가능한 발전
예상 소요 시간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p style="text-align: center;">①</p> <p>정(政)은 바로잡는다는[正] 뜻이다. 똑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토지의 혜택을 받아 부유한 생활을 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여 가난하게 살 것인가. 이 때문에 토지를 개량하고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 주어 그것을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정이다. 누구는 풍요로운 땅이 많아 남는 곡식을 버릴 정도이고, 누구는 척박한 땅도 없어 모자라는 곡식을 걱정해야 할 것인가. 이 때문에 배와 수레를 만들고 계량 도구의 규격을 세워 한 고장에서 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고 없는 것을 통하게 하는 것으로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정이다. (중략) 누구는 상대를 업신여기고 불량하고 악독하면서도 욕신이 멀쩡하게 지내고, 누구는 온순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착하면서도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이 때문에 형벌로 징계하고 상으로 권장하여 죄와 공을 가리는 것으로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또한 정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②</p> <p>모진 소리를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모진 소리를 들으면 / 가슴이 찢어진다. / 온몸이 쿡쿡 아파 온다 누군가의 온몸을 / 가슴속부터 찢 금 가게 했을 / 모진 소리</p> <p>나와 헤어져 /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 내 모진 소리를 자꾸 생각했을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 누군가를 생각하면 모진 소리, / 늑골에 정을 친다 / 찢어엿 세상에 금이 간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③</p> <p>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 이후 향신료, 비단 등 동양 상품의 수요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동서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동양과 직접 교역하려는 욕구가 커졌다. 『동방견문록』 등으로 동양에 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천문학, 지리학, 조선술의 발달과 나침반의 사용 등으로 원양 항해가 가능해지자, 유럽인은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섰다. 지중</p>

해를 통한 향신료 무역에서 소외되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서아프리카 해안을 돌아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희망봉'이라 부른 아프리카 남쪽 끝에 도착하였으며, 바스쿠 다 가마는 이슬람 상인의 도움을 받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함으로써 인도 항로를 개척하였다.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대서양 항로를 개척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였다. 마젤란 일행은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횡단하고 최초로 세계를 일주하였다. (...)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 아메리카 곳곳에 유럽인들이 몰려들었다.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와 피사로는 화포로 무장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각각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다. 이후 그들은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수탈하고 원주민을 동원하여 사탕수수, 담배 등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였다.

④

“형이 고발할 테야? 날아다니는 새 잡아 박제한다구? 그건 죄가 되구, 허가 낸 사냥총으로 새 잡는 치들은 죄가 안 된다 말이지?”

병식이 코웃음 쳤다.

“희귀조가 멸종되고 있다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를 창조할 순 없어.”

“개떡 같은 이론 집어치워. 지구상에는 삼십억 넘는 새가 살아. 그중 내가 몇 마리를 죽였다 치자. 형은 그게 그렇게 안타까워?”

“박제하는 놈을 못 대겠어?”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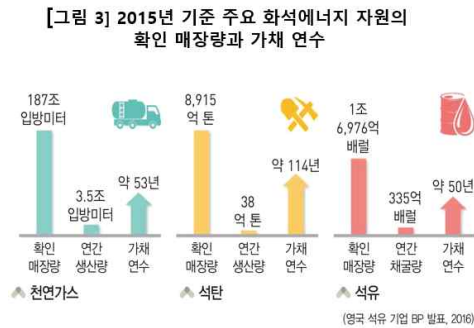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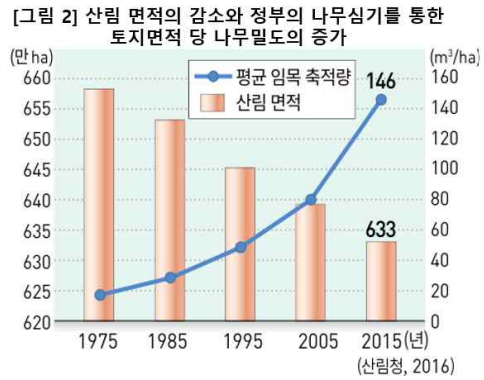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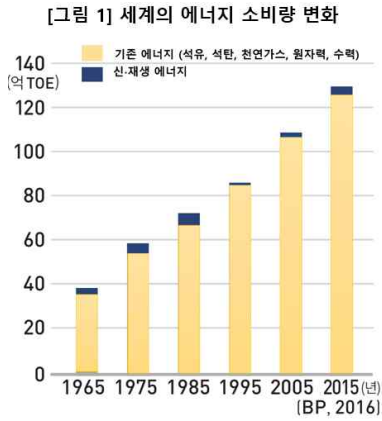
저녁에 병식이 귀가하면 박제 집을 알아내는 일이 더 쉬울 것 같았다. 병국은 경찰을 앞세워 박제사 집을 덮치거나 고발할 의향은 없었다. 박제품이 보호조가 아닌 이상 처벌 대상인지 어떤지도 모호했다. 동진강 하구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채취하는 일과 새를 잡는 일이 무엇이 다르냐고 따질 때 반론을 제시할 근거가 없기도 했다. 나무 한 그루를 베어도 처벌받는 산림법 벌칙이 조류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수렵 금지 기간이 따로 있지만, 총포류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그 벌칙에서도 빠져나갔다. 짐승이나 조류의 박제품은 연구용 내지 관상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자연 보호 명목을 원용한다면, 야생 조류의 남획이 경범죄 정도에는 해당될 것 같았다. 병국이 박제사를 만나면 그를 설득해 조류 중에 나그네새나 철새의 박제만은 하지 말라고 말할 작정이었다. 박제사가, 남의 생업까지 왜 막느냐고 번서면 야생동물 보호 협회 경남 지부와 협의해서 강구책을 세우기로 했다.

⑤

지의류는 잘 알려진 공생 생물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끼처럼 보이는 지의류는 사실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와 파래나 청각 같은 조류가 한데 어우러진 생물체다. 보통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 뒤, 이를 독식하지 않고 균류에게도 나눠 주어 균류의 생존을 돕는다. 한편, 조류로부터 포도당을 넘겨받은 균류는 공기 중의 수증기를 흡수하여 조류에게 공급해 조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류의 포자 방출을 돕기도 한다. 지의류의 공생 관계는 너무도 밀접하여 이 둘을 분리하면 단독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서 진화한 새로운 생물 종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문제 1】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⑥



【문제 2】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군주는 참소를 믿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군주는 적절하게 신중하고 자애롭게 행동해야 하며,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경솔하게 처신하거나 의심이 많아 주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 견해는 사랑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기는 어려우므로 굳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여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는 사람들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당신에게 막상 그럴 필요가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